

함평 친환경 농산물 수출...‘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

캄보디아와 샤인머스켓·딸기 등 30만달러 수출 협약 농가 판로 확대·소득 증진...“품목 다변화·마케팅 지원”

함평군이 해외 시장에서 축적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결실을 맺으며, 글로벌 농식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캄보디아 현지 유통업체 ‘슬레이맘’과 샤인머스켓·딸기·태추단감 등 30만달러 (4억 원대) 규모의 농특산물 수출 확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27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결한 ‘함평군 농산물 수출·임업무협약’, 그동안의 수출 성과와 상호 신

뢰를 바탕으로 수출 규모를 한 단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군 관계자 8명과 온 슬레이맘 대표를 비롯한 슬레이맘 관계자 5명이 참석해 수출 확대 방안과 캄보디아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 따라 군은 기존 샤인머스켓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딸기와 태추단감, 만감류까지 수출 품목을 확대해 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소득 증진에 힘을 기울인다.

군은 이번 캄보디아 수출 확대를 계기

로 함평군 공식 수출 브랜드 ‘K-HC Food (Korean Hampyeong County)’를 앞세워 국제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해외 바이어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슬레이맘 측도 농가를 방문해 생산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선별·포장 등 품질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장기적인 거래를 위한 검증 절차도 진행하며 상호 신뢰를 다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 지역 농산물의 중장기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품목 다변화와 체계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함평군은 최근 군청에서 캄보디아 현지 유통업체 ‘슬레이맘’과 샤인머스켓·딸기·태추단감 등 30만달러 규모의 농특산물 수출 확대 협약을 체결했다.



곡성군과 ㈜곡성교통은 최근 군내버스 무료화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최호진 (㈜곡성교통 대표, 조상래 곡성군수.

곡성, 새해 첫 날부터 군내버스 전면 무료화

곡성교통과 업무협약 체결...교통복지 정책 확대

곡성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군내버스를 전면 무료화한다.

25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주)곡성교통과 군내버스 무료화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군내버스 무료화는 (주)곡성교통이 운행하는 모든 군내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군민은 물론 곡성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 누구나 교통카드나 현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담양읍·옥과면 노선 중 담양 구간 내에서 승·하차하는 경우와 곡성군을 운행하는 타 시·군의 운수사의 노선은 기존 요금에 유지된다.

군은 2016년 1000원버스 단일요금제를

도입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호도택시를 운영하는 등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번 군내버스 무료 운행으로 군민 이동 편의 증진과 교통복지 향상, 지역 간 이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군내버스 무료화 시행으로 군민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이동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객 역시 부담 없이 군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민 기자 hnnews1@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2000만원 익명 기탁

을 기부한도 최고액

강진군에 지난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 이래 첫 2000만원 기탁자가 탄생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익명의 기부자가 강진군과 군민을 위해 기부금을 잘 써달라며 그 이상의 내용 언급을 정중하게 거절한다는 내용과 함께 2000만원을 기탁했다.

연간 기부 한도가 2000만원으로 상한을 넘은 최초 기부자가 탄생했다.

군 관계자는 “강진을 사랑하는 기부자의 감동적인 실천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며 “2026년에도 기부자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강진품에 기댄 일상동행 서비스’를 비롯한 금주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품질 좋은 강진 답례품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연말을 기념해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오는 31일까지 10만원 이상 강진 기부자 중 50명을 추첨해 2026년 1월 중 강진 특산물 랜덤박스를 추가 배송할 계획이다.

한편 강진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예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기부와 전국 농협 지점에서의 대면 기부 가능하다. 국민, 기업, 신한, 하나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다.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강진=이진묵 기자 sa4332252@

영암, ‘월출페이’로 출생아 기저귀 지원 가정 확대

내년부터 소득기준 완화...월 9만원 24개월까지

영암군은 출산 가정의 육아 부담 완화, 양육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내년 부터 영아 기저귀 구입비 지원을 출생아 70% 수준으로 확대한다.

지난 2015년부터 국가가 지원해 오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둘째 아이부터’ 기준을 확대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첫째 아이부터’ 기준으로 지급을 결정하고, 추가 예산은 군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2025년 3인 가족의 기준중위소득

100%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7만9415원이고,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영암군에 출생 신고한 영아가 있는 가정 중 기저귀 구입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영아 1인당 9만원을 최대 24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은 기저귀 구입비 지급 확장분을 지역화폐 ‘월출페이’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한부모, 다자녀 등 가정을 포함한 기존 국가사업 지원 가정에는 이전처럼 바우처 포인트가 제공된다.

2022~2025년 출생아 약 30%에게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해 온 결과를 토대로 영암군은 이번 지원 확대가 70% 출생아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2월 영암군은 보건복지부에 전체 출생아에게 기저귀 구입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건의하며 사회보장협의회를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기준중위소득

100% 등 내년 영암군의 지원 확대 수준으로 정책을 조정할 것을 ‘협의안료’ 의견으로 통보했다.

박수희 영암군보건소장은 “영아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저귀 비용은 가정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 영아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확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보건소 건강관리팀 (061-470-6538)에서 한다. 영암=한정환 기자 hck1342@



나주시는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남도가 주관한 각종 보건 행정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5개 부문 기관 표창을 받았다.

나주 ‘식품 행정 5관왕’...외식·먹거리 환경 앞장

식약처·전남도 평가서 식품 안전·급식·음식문화 등 기관 표창

나주시가 식품 안전 관리 강화와 건강 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한 해 동안 식품 안전, 급식, 음식문화 등 5개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받으며 식품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식품안전관리’, ‘식중독 예방 관리 평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 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전남도가 주관한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공중위생 업무 평가’에서도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식중독 예방 역량 강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 안전관리 내실화, 건전한 음식문화 확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식품 행정 전

면에서 나주시의 정책 추진 성과가 고르게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시는 식품 제조, 유통, 판매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점객업소와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수시 위생 점검을 강화해 왔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현장 중심의 개선 지도와 컨설팅을 병행하며 실질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끌어냈다.

특히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큰 하절기와 지역 축제 기간에는 다중이용시설과 집단

급식소를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과 예방 활동을 집중 추진했으며 민관 합동 식중독 예방 모의훈련과 종사자 위생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5개 분야 기관 표창 수상은 단속이나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식품 위생과 안전관리, 공공 급식, 음식문화와 외식 환경 개선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나주시 식품 행정의 종합적 성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탱하는 기본 토대”라며 “2026년 나주 방문의 해를 앞두고 쾌적한 외식 환경 조성과 먹거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고흥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확산 재활용 동네마당 4곳 신규 설치

고흥군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단위 재활용용 분리수거 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4개소를 신규 설치했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페트병, 캔, 종이, 유리병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 주변과 주거 밀집 지역에 설치됐다.

군은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 부족과 마을 주변 무단투기 문제를 해소하고, 재활용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군은 향후 분리배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군민 참여도를 고려해 추가 시설 설치와 보안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